

자가지방을 이용한 성대주입술 전후 주관적 음성장애 정도와 음성분석을 통한 결과 비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정필상·이상준·이기일

목 적 :

성문폐쇄부전이나 성대마비, 성대구증 환자에서 자가지방을 이용한 성대주입술 전후의 음성장애 정도와 음성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환자의 주관적, 객관적 호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애성이나 흡인을 주소로 내원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지방을 이용한 성대주입술을 시행하였다. 전신마취 하에 복부지방을 채취하여 현수후두경하에 18gauge 바늘로 injector를 이용하여 성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후 음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입된 지방의 양은 성문폐쇄부전에서는 일측에 0.2 cc, 성대마비에서는 0.6~1.2 cc, 성대구증에서는 0.6 cc였다. 성문폐쇄부전 2명, 일측성 성대마비 5명, 성대구증 1명으로 총 10예가 시행되었다.

결 과 :

Visual analog scale을 바탕으로 한 수술 전후 주관적 증

상은 성문폐쇄부전에서는 50점에서 60점, 성대마비에서는 30점에서 55점, 성대구증에서는 27점에서 30점의 결과를 보였다. 수술전후 음성분석에서 기본주파수는 성대마비에서는 222.2 Hz에서 184.0 Hz, 259.8 Hz에서 162.0 Hz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Jitter는 성대마비에서는 4.85%에서 2.55%, 성대구증에서는 0.29%에서 6.33%였으며 shimmer는 성대마비에서는 9.0%에서 8.5%, 성대구증에서는 2.3%에서 13.8%의 결과를 보였다. MPT는 성대마비에서는 4.3초에서 9.6초, 성대구증에서는 12.9초에서 14.7초로 호전된 양상이었다. MFR은 성대마비에서는 325.5 ml/sec에서 158.7 ml/sec, 성대구증에서는 술후 109 ml/sec였다. 성문하압은 성대마비에서는 13.7 mH₂O에서 14.9 mH₂O의 결과를 보였다.

결 론 :

수술 전후 주관적, 객관적 지표상 성문폐쇄부전과 성대마비에서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성대구증에서는 유의한 호전 양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